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미 사 시 간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 아	세 레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2022년 “제59회 본당의 날”

- 기념 미사
 - 10월 16일(일), 교중 미사(10:30)
- 행사
 - 일시 및 장소 : 교중 미사 후 본당 주차장
 - 내 용 : 구역 대항 율놀이, 행운권 추첨
국수 잔치 및 먹거리 등

* 서울대교구 제16지구 항동성당 신축지원 *

- 제16지구 사제회의 결정 (2022. 3. 3.)
- 지원금액 산정 : 본당 신자 수 × 10,000원
- 납부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 9월 30일 현재 ₩15,380,000 납부되었습니다.

◎ 알 림

- 10월 12일(수) 11시 경로당 율리미사가 소성전에서 있습니다.
- 10월 12일(수) 저녁 8시 본당 임원 모임이 식당에서 있습니다.
- 10월 14일(금) 병자영성체(봉성체)가 있습니다.
- 보스코 홀(장례식장)은 10월 17일부터 재개합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

(맛별이 / 이주민 / 다문화 / 다자녀)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모 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우리어머니 Cu	10월 9일(일), 12시	강 당
사도들의 모후 Ou	10월 9일(일), 13시 30분	강 당
재녀들을 위한 기도 모임	10월 13일(목), 19시 40분	1교실

◎ 다음 주일(10/16)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사목위원	청 소	24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9월 28일 ~ 10월 4일)

교 무 금	8,645,000원
주일헌금	4,402,500원
군인주일 2차 헌금	1,981,000원
감사헌금	김천길10만원 심진보10만원 양○○ 5만원 김종란60만원 김지아20만원 김성호30만원

◎ 교 육 / 강 좌

- 매주 목요일 10시 40분 시니어 아카데미가 강당에서 있습니다.
-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 젓갈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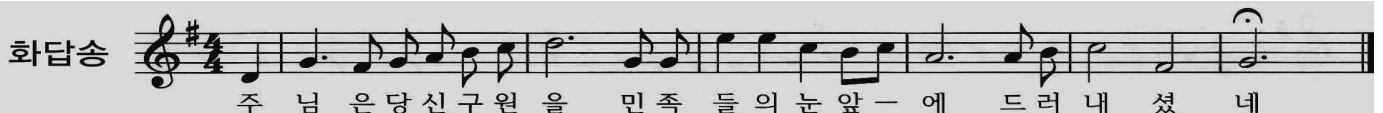
- 접 수 : 10월 23일 당일만 수량 및 현금 접수 가능
- 접수장소 : 본당 앞마당
- 젓갈 인도일 : 10월 30일 당일만 본당 앞마당
- 가 격 : ① 신안새우젓-육젓 2kg→6만원
-추젓 2kg→2만3천원
② 추자도멸치액젓 5kg→2만3천원
③ 까나리액젓 5kg→2만3천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10/9	박혜선	신종구 김진수	김덕영 정재경
10/16	최경희	심재순 장희석	안상록 손정주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0/9	오광운	장인홍	손상민 최석준	이운영
10/16	이화봉	최영만	김영배	오광운 박형순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다른 이를 알게 되는 기쁨

218. 이는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 될 권리와 남과 다를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역량을 의미합니다. 그 자체로 문화가 되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할 때 사회규약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없다면, 다른 이들을 사회에서 무의미하고 상관없고 어떠한 가치도 없게 만드는 교묘한 방식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가시적 형태의 폭력들을 거부한다고 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더 교활한 폭력이 숨어 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다른 이를 경시하는 자들은 특히 다른 이의 요구가 어느 모로든 그들의 이익을 해칠 때 그러한 폭력을 자행합니다.

219. 사회의 일부가 마치 가난한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마냥 행동하며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누릴 때, 결국 그 여파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다른 이들의 존재와 권리를 무시하면, 조만간 예기치 못하게 어떤 형태로든 폭력이 발생합니다. 자유와 평등과 형제애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저 숭고한 이상으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그저 경제계, 정치계, 학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력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만남을 모색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회적 만남은 주민의 대다수가 공유하는 훌륭한 문화 형태를 참된 대화에 포함시킵니다. 좋은 제안들이라도 사회의 더 빈약한 부문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그들 것이 아니고 동질감을 느낄 수 없는 문화적 옷을 입고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규약은 또한 사회 안에 공존하는 생활 양식들, 문화들, 다양한 세계관들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문화’이어야 합니다.

220. 예를 들어, 토착 민족들은 진보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해도 진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흔히 토착 민족들의 진보 개념이 선진 민족들의 현대 문화에 따른 개념보다 훨씬 더 인본주의적입니다. 이는 힘 있는 자들, 일종의 지상 낙원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자들의 이익을 지향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토착민 대중문화에 대한 불관용과 경멸은, 바로 선의라고는 전혀 없는 남들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윤리주의자’가 저지르는 실질적인 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들, 그 무엇보다도 가난한 이들의 문화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진정성 있고 심오하며 안정적인 변화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문화 규약은 특정 장소의 정체성에 대한 단일한 이해를 삼갈 것을 전제로 하고, 사회적 통합과 발전의 방법을 제공해 주는 다양성을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